

지난해 보험사기 7982억원 '역대 최고'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상> 줄어들지 않은 보험사기

보험 사기 범죄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만 적발된 금액은 7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80억 원(9.3%) 증가한 규모다. 적발인 원도 7만 9179명으로, 1인당 사기금액이 평균 1010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인 연도별 보험사기 금액은 2016년 7185억 원에서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총 464건의 보험사기 범죄가 적발돼 1138명이 불합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등

광주 464건 1138명 적발...한방병원 이어 요양병원도 잇단 범죄
생계형 범죄서 갈수록 조직·전문화...보험금 누수액 1~6조 추정

에 따르면 2016년 350건이던 광주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17년 379건, 2018년 4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 금액도 2016년 84억여원, 2017년 376억 원, 2018년 174억 원 등에 이른다.

과거에는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들어 조직화·전문화되면서 1인당 사기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등 전문 인력들까지 가세할 경우엔 보험사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다.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액을 연간 6조원, 공영보험(건강보험제정) 누수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

산하고 국가재정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한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3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는 경제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보험사기 특징은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임원보코를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됐으며, 최근엔 한방병원에 이어 요양병원에서도 보험 범죄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광주지역 한방병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4곳, 2016년 91곳, 2017년 99곳, 2018년 89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으로도 85곳이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은 324곳으로 이 가운데 26.2%인 85곳이 광주에서 집중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24곳)과 전북(29곳)까지 더하면 호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방병원은 138곳으로 전체 한방병원의 42.5%가 몰려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병원은 양방병원원에 비해 적은 의료설비로 운영이 가능해 개인이 비교적 쉽고, 일부 사무장병원이 한방병원을 개설 통로로 악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주에서 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탓에 광주지역 자체가 보험사의 요주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행위를 명심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자살 시도 5년간 5367명 달해 사망자는 485명

자살·자해를 시도하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자살·자해를 시도하다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5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환자 수도 광주 292명, 전남 183명 등 4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광주에서 ▲2014년 484명 ▲2015년 677명 ▲2016년 744명 ▲2017년 736명 ▲지난해 808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313명 ▲333명 ▲364명 ▲389명 ▲484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래 영농인들 지게체험 24일 광주시 북구 자연과학고에서 열린 '제48회 전국 미래 영농인(Future Farmers of Korea·FFK) 전진 대회 지게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게 짊어지고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상무중·치평중 통합 여부 학부모 투표로 결정

다음달 25~30일 ARS로 찬성 편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백억 원을 들여 건립할 진로체험·복합문화 센터 대지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광주 상무중, 치평중 통합 여부가 다음 달 말 학부모 투표에서 판가름 난다. 두 학교 통합 관련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회적 논의기구'는 24일 회의를 열어 투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논의기구는 다음 달 25~30일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묻기로 했다. 정확한 설문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참여 대상은 상무중 291명, 치평중 390명 학생의 부모다.

광주시교육청은 찬성률 50% 이상이면 통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되 한 학교라도 찬성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통합 추진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과 광주 서구는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하고 흡수된 학교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 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에 맞춘 것이다.

서구에서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했다.

그러나 통합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무중을 중심으로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반대로 교육·복지시설 확충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찬성하면서 여론이 갈렸다.

시교육청은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7월 초 각각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진도군 '연안 정화의 날' 행사 전날 미리 해양쓰레기 뿌려놓아 '빈축'

"행사 효과 높여" 궁색한 변명
진도군이 바다 정화행사를 개최하며 미리 쓰레기를 뿌려놓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제19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남도지사,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업인,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변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를 2시간여 동안 열심히 치웠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이 쓰레기는 진도군이 행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근 해변에서 주워다 전날 뿌려 놓은 페스티로폼,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드러났다.

주민 A씨는 "가계해수욕장은 평소 주민들이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며 "진도군이 행사 하루 전 인근에서 쓰레기를 싣고 와 깨끗한 해변을 쓰레기 가 많은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행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

양쓰레기를 갖다 놓은 사실을 인정했다. 쓰레기는 100% 수거해 해안 쓰레기 폐기물 보관장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서 사전에 수거한 페스티로폼 등을 활용했다"면서 "당일 행사 참석자들이 실제 체험을 해 보자는 취지로 사전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성혁 장관은 페이스북에 "진도군이 행사 전 일부 쓰레기를 해안에 놓아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과장이 더해지면 행사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불신과 실망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작년의 두 배가 넘는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을 올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절도책 中 동포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4일 경찰관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간 중국 동포 이모(21)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낮 12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노모(여·77)씨의 집에 침입해 전화기 옆에 둔 16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가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은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개인 정보 유출로 계좌가 개설돼 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제내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노씨를 속였다.

이후 다시 노씨에게 타 은행에서도 돈이 인출 된다며 다른 은행으로 유인한 후 절도책인 이씨가 노씨의 빈집에 들어가 이를 훔쳤다.

이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챙긴 뒤 지역 은행 여러 곳을 돌며 14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금융사기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께에도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수범으로 현금 38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접촉사고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택시 추격전 끝 붙잡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무면허 불법체류자가 택시기사와 추격전 끝에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인 A(27)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B(26)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나, 2km정도를 추격한 B씨에게 붙잡혔다는 것.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차를 세우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근 경남 진해에서 초등생을 치고 출국한 불법체류자 사건이 생각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